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갈라디아서 5:16~25. 성신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은 영의 열매를 생활에 가져다준다.(10~15분)

나무에서 자라는 것으로 두 종류의 열매를 보여준다. 그것들이 어떤 나무에서 자라는 것인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칠판에 그려진 나무를 칠판에 그린다. 열매나 나무의 이름을 적지는 않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23절을 읽는다.**

두 학생을 칠판 앞으로 나오게 한다. 한 학생에게는 19~21절에 열거된 열매를 맺는 나무의 이름을 말해 보게 한다. 다른 학생에게는 22~23절에 열거된 열매를 맺는 나무의 이름을 말해보게 한다.

두 학생이 나무의 열매 이름을 적고 있는 동안, 다른 두 학생에게 사전을 주고 칠판에 나온 단어 가운데 어려운 단어의 뜻을 찾아보게 한다. 필요하다면 사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반전체가 함께 이 열매들에 대해 토론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각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
- 육체에 속한 것들이 그들에게 큰 해를 미칠 수 있는데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는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또한 육체의 일들을 피할 수 있는가?

성신의 속삭임은 우리 생활에 성령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도록 지시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질문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다음과 같이 뜻 깊은 말씀을 해 주었다.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서 성신의 은사를 지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집, 전 5권 [1957~1966년], 2:114)

우리는 침례받은 회원으로서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침례 성약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거부하고 영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성신의 열매가 주는 기쁨을 우리 생활에 가져다 줄 것이다.

갈라디아서 6:7~10. 수확의 법칙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15~20분)

심음 그리고 수확을 함이라고 칠판에 적고, 또 학생들에게 원예의 이 두 가지 기본 과정을 설명한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씨앗을 보여주며 또 그들에게 이 씨앗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날 것인지를 맞혀보라고 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가 한 종류의 씨앗을 심었는데도, 다른 종류의 식물이 자라날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각 종이에 갈라디아서 6장 7~10절의 각 구절을 적어서 각 그룹에게 하나씩을 준다. 각 그룹에게 이 구절을 요약해 주는 문장을 하나씩 적어보게 한다. 그리고 나서 각 그룹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적은 문장을 칠판에 적게 하되, 핵심 단어는 빈칸으로 남겨 두게 한다. 반전체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10절을** 읽고 빠진 단어를 채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고 나서 수확의 법칙과 그것이 인생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수확의 법칙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8절을 읽고 질문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영을 위하여 심음으로써 수확을 거두었던 축복을 나누어주도록 권유한다. 이러한 경험에는 경전 읽기, 봉사 활동, 금식, 또는 인내심을 보이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수확의 법칙에 예외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보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제3니파이 27장 11절을** 읽게 하고 나서 “때가 이르면”과 “잠시”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 율법에 예외가 없음을 나타내주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비록 이 율법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음 사례 연구를 주어 이 율법이 어떻게 각 상황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 김민규 형제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데도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정민수 형제는 김 형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으나 십일조는 내지 않는다. 그는 상당히 많은 물질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
- 김채연 자매는 정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고등학교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다. 박미연 자매는 시험 중에 부정 행위를 하여 최고 성적을 얻었다. 성적이 좋아서 이 자매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했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악인이 일순간 변성할 수 있으며, 반항자가 범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정의의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어느 사람도 심판대를 피해 갈 수는 없다. 그 날에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벌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게 되며 자기가 쌓은 축복을 잃을 자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 온전한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마태복음 25:3~46 참조) (용서가 낳는 기적, 276쪽)